

술집마다 대기줄...클럽엔 발 디딜 틈 없어

현장르포 주말 상무지구 유흥주점 가보니

마스크도 미착용...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무색 코로나 역풍 우려...지자체 "긴장 끈 늦춰선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강력 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캠페인을 벌 이고 있지만 유흥주점이 밀집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는 주말을 즐기 위해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특히 술집에 들어서기 위해 다닥다닥 줄을 서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 지 않는 젊은이들이 술집 안을 가득 메 우는 등 '코로나19 역풍을 맞는 것 아 니냐' 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저녁 8시 30분. 광주의 대 표적인 유흥지역인 상무지구에는 수많은 젊은이들로 북적거렸다.

주변 통유리로 된 주점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지인들과 이 야기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주 점 안으로 들어서기 위해 길게 줄을 선 장면도 목격됐다.

이후 저녁 9시경 광주시청 직원 7명,

서구청 보건위생과 직원 5명, 광주지방 경찰청 풍속팀 4명, 서부경찰서 생활질 서계 5명,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2명 등 총 23명의 공직자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홍보·계도하기 위해 모 였다.

이들은 상무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청년들에게 홍보물을 나눠줬으며, 지 나가는 택시 운전기사에게도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후 주점 단속팀·클럽 단속팀 등 2개 조로 나뉜 이들은 밤 10시까지 평소 손님이 많은 주점과 클럽 등을 돌아다니며 업주에게는 손 소독제 비치, 명부 작성 등을 계도했고, 손님들에게는 마스크착 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홍보했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지자체 공무원들 이 나눠주는 홍보 팸플릿을 외면하기 일수였다.

인근 클럽에는 마스크 미착용 청년

들도 입장을 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무 대에 올라 근접거리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

또 다른 술집에는 손님들로 넘쳐났고 마스크를 벗은 채 1m도 안 되는 의자 사이로 서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는 찾아볼 수 없었

다. 또 흡연자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아 무렇지 않게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대화 를 나눴고 또 거리에는 5명 중 1~2명이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 기도 했다.

서구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22일부 터 매일 단속을 나오다 보니 많은 업주

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고 있다. 몇몇 클럽과 주점은 다음달 5일까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 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긴 장의 끈을 늦춰선 안된다. 주기적으로 단속을 나서 사회적 분위기 환기에 나 서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28일 저녁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한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 4~18	흑산도	☀ 6~12
담양	☀ 4~18	구례	☀ 5~19
화순	☀ 5~18	곡성	☀ 5~18
영광	☀ 4~15	완도	☀ 8~17
함평	☀ 4~16	강진	☀ 6~17
무안	☀ 5~15	장흥	☀ 6~17
영암	☀ 5~17	해남	☀ 5~17
진도	☀ 6~15	고흥	☀ 6~16
신안	☀ 6~15	보성	☀ 5~16

일출 06:22 일몰 18:52
월출 09:43 월몰 --:--

목포	만조 05:37 17:36	여수	만조 00:12 12:08
	간조 10:46 22:53		간조 06:09 18:1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상무지구대 임의 동행 20대 미열 선별진료소 이송 뒤 정상 체온

가출 직후 부모와 다투다 경찰과 임의 동행한 20대 여성이 미열 증상을 보여, 경찰 지구대 건물에 일시 폐쇄·방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께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에 미귀가자로 분류된 A씨(20·여)와 A씨의 부모가 임의 동행했다.

앞서 집을 나온 A씨는 이날 거리에서 부모와 우연히 만나 크게 말다툼을 벌였다.

신고를 받은 상무지구대 야간 근무 경찰관들은 A씨 가족에 대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차리에 걸쳐 체온을 측정했으며, 모두 정상이었다.

이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와 간단한 경위를 파악했다.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역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시도했다.

119구급대원들이 이송 직전인 새벽 2시 30분께 A씨의 체온을 다시 측정하자 37.5도로 나타났다. 119구급대는 미열 증상자 A씨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급히 전남대병원 선별진료소로 옮겼다.

상무지구대는 일시 폐쇄돼 긴급 방역에 들어갔으며 A씨 가족, A씨와 접촉한 경찰관들도 지구대에 일시적으로 격리됐다.

A씨는 선별진료소 검진 과정에서 체온이 떨어져 다시 정상 수준으로 되돌아왔고, 별다른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무지구대 일시 폐쇄와 접촉자 격리 조치도 2시간 만인 이날 새벽 4시 30분께 해제됐다.

/김영민 기자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주장 20대 기소

자가격리 규정 위반 교인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뒤 병원 이송 도중 도주 소동을 벌인 2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3)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주장하다가 조선대병원으로 옮겨지자 후문으로 달아나 1시간 가량 광주 시내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서구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졌고 관찮냐고 묻는 서점 관계자에게 "경기도에 사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광주 신천지 행사에 가려고 왔다. 중국인과 접촉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119 구급대원들은 A씨를 선별진료소로 이송한 뒤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해당 서점은 자체적으로 임시 폐쇄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대구에 방문하거나 중국인과 접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조치됐음에도 수칙을 위반하고 출근한 신천지 신도 B씨(23)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 격리 대상이었으나 2월 24~26일 26일까지 근무한 광주 서구 소재 피트니스 센터에 출근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김영민 기자

사업가 숨지게 한 조폭 부두목 '강도치사' 구속

내달 2일 첫 재판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60)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강도치사, 감금,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19일 하수인 2명과 친동생 등 3명을 동원해 광주에서

사업가 A씨(56)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기 양주시내 한 공영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다.

공범들은 곧바로 검거됐으나 조씨는 달아난 뒤 잡혔다. 경찰은 조씨를 공개수배하기도 했다.

9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달 25일 충남 아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조씨는 회사 인수·합병(M & A)

투자를 둘러싼 금전적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강도치사 혐의 등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같은 혐의를 적용해 조씨를 재판에 넘겼다. 조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영민 기자

음주운전 경찰 간부, 징계 절차 본격화

코로나19 확산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한 광주 지역 경찰 간부에 대한 수사·징계 절차가 본격화된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새벽 4시 20분께 서구 풍암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간부 경찰관 A경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적발됐다.

당시 A경감은 차량을 횡단보도 인근 인도를 일부 침범해 정차한 뒤 잠을 자

고 있었다.

경찰은 A경감이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닌 추정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감찰계도 30일 오후 A경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 /김영민 기자

우리지역 광주·전남 제품
지역인재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기업

air purifier **DK**

스탠드형
사무실, 가정용
어린이집, 유치원 특화제품

벽걸이형
경로당, 병원, 노인복지시설
사무실, 초중고 학교용 특화제품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